

공간민주주의 헌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공간에서 시민과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실천할 때 비로소 공간민주주의는 실현됩니다.

공간민주주의 실현

시민과 지역사회

- 공간의 주체로 참여
- 지역자산 보전, 공유
- 공동체 협력으로 지속가능성 실현

지자체와 지방의회

- 공간민주주의 원칙 제도화
- 지속가능한 공간정책 추진
- 시민참여 공간거버넌스 구축

중앙 정부

- 지역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 제도, 재정 기반 마련
- 국가정책과 공간민주주의 연계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견고하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그것이 공간민주주의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빛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K-민주주의, 형평과 공정을 지향하는 경제 민주화에 이어 이제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간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참여와 열린 속의를 바탕으로 공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여야 한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며,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건고 싶은 골목, 머물고 감동받는 일상의 공간, 가슴 뛰는 광장은 살아 숨 쉬는 삶의 무대이다.



3대 기본원칙

- 원칙1. 시민의 권리와 참여** 공간의 주체는 시민이다. 모든 시민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공간·공유공간·공공공간 모두에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함께 키워 나간다.
- 원칙2. 다원성과 포용성** 공간은 수많은 사람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채로움을 향유하는 장이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시민의 창발적 의견이 살아나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지향한다.
- 원칙3.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공간은 미래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자산이다.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6대 극복과제

- 문제1. 권력 독점에 따른 공간 주체성 약화**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주체 의식을 높이고, 공간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 문제2.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단절과 공간 분절**
단절된 공간 구조를 개선하여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이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한다.
- 문제3. 획일화에 따른 다양성과 지역성의 상실**
획일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되살리고, 지역 특성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반영된 공간을 만든다.
- 문제4. 과시적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일상의 감동 상실**
상징성과 규모를 앞세운 개발 경쟁을 넘어 시민이 걷고 머물며 일상의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문제5. 개발 압력에 따른 시공간 단절과 공간 자산 훼손**
지역 공간자산의 무분별한 철거와 개발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성과 지속성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 문제6. 지역소멸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 그리고 소수자에게 열린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12대 실천 의제

- 제1조. 공간주권** 공간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간다.
- 제2조. 관계성**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을 잇는다.
- 제3조. 사적 공간의 사회적 책임** 심지어 사적 공간도 사회적 소통 체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 제4조. 시민숙의** 공간은 특정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쓰임새에 시민의 숙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조. 지역성** 지역 특색과 기억을 다원화하여 참된 지역성을 창출한다.
- 제6조. 건고 싶은 도시** 건고 싶은 도시가 최고의 도시이며, 잠깐의 걷기와 앉기가 최고의 하루를 만든다.
- 제7조. 다원성과 포용성**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 공간을 조성한다.
- 제8조. 일상의 여유** 누구나 쉽게 머물고 쉬며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의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 제9조. 시간과 기억의 축적** 공간은 시간의 켜와 기억이 쌓여 갈수록 매력적 자산이 된다.
- 제10조. 지속가능성** 공간은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1조. 정주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만이 지속 가능하다.
- 제12조. 삶의 질과 행복** 공간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광화문 광장



순천만 국가정원



서울숲



전주한옥마을



경주 향리단길